

# 무안 개발촉진지구 벌써부터 관심 집중

## 郡, 사업 설명회... 리조트·은퇴 시티 등 대대적 조성

### 1648억 투입 2018년까지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무안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좌절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에는 다시 기대감이 뿔뿔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개발촉진지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무안군 일대 8개 읍면 7개 권역 39.3km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는 무안군이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개발 계획은 석룡 휴양관광단지, 농공단지, 은퇴자시티 조성 등

의 추진 방안이 담겼다. 지구 내 14개 사업에 1648억원(국비 515억원, 지방비 184억원, 민자 949억원)이 투입되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무안 북부 해안권인 해제면 일원에 해수위터파크·헬스케어파크·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석룡휴양관광단지를 짓는다. 현경면에는 해양스포츠센터와 해수욕장 이용객 대상의 휴양유원지, 망운면은 건강보양센터·컨벤션센터와 공원 등을 건설하는 조근나루 건강보양 단지가 각각 들어선다.

서부 해안권인 운남면 일원에는 해

양 플랜트부품 제조업 등 유치를 위한 운남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삼향읍에는 초의선사 탄생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내륙 청계면 일원에는 도시 은퇴자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청계월선 은퇴자시티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 지역 일대 도로 등 8개 사업에 45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황토, 갯벌, 리아스

식해안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산업의 발전으로 군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역시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사활이 걸려 있어 향후 군이 어떠한 전략을 내놓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신안에 '박유천 도서관' 짓는다

### 유명 연예인 팬클럽 '블레시유천' 500만원 후원

### 섬마을 다문화 가정 아동 위한 공부방 등 설립

유명 연예인의 팬클럽이 신안 한 섬마을에 도서관과 공부방을 만들어달라며 후원을 내보 화제다.

신안복지재단(이사장 박민서)은 12일 "지난 10일 박유천 팬클럽 '블레시유천'으로부터 섬마을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박유천 도서관 및 공부방' 설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팬클럽 블레시유천은 전국 각지에 있는 회원들이 모은 중고도서 8800여권과 문구류, 그리고 공부방 지원금 500만원을 천사의 섬 신안복지재단에 후원했다.

신안복지재단은 이 후원금품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 학습 지원을 위해 장산면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공부방과 작은 도서관에 지원했다.

이날 전담식에 참석한 일본 및 한국 팬클럽 회원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 회원은 "박유천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책을 보며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복지재단 박민서 이사장은 "박유천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을 도서지역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유천을 사랑하는 30대 이상 누나, 이모 모임인 블레시유천은 3년 동안 박유천 이름으로 1억여원을 아동 치료비 및 공부방 지원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신안=이상진기자 sslee@

### "공직자들 차별 없는 對民자세 필요"

#### 전석종 전남경찰청장 합평군 월례회의 특강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1일 합평역스포공원에서 열린 합평군 9월 월례조회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인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은 시대가 '배고픈 사회'에서 '배아픈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며 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차별'을 꼽았다.

이어 유독 '피부색'만으로도 떠받들거나 폄하하는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으며, 공직자로서 공평한 자세로 모두를 끌어안고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아내에게, 동생에게 얘기 하듯 국민에게 설명했다"는 브라질의 플라 전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공직자들이 군민들과 진심을

답아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의 융통성을 조화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03년 합평경찰서장으로 취임해 합평과 인연을 맺었으며, 서울청 해화경찰서장, 경찰청 정보4과장, 경기청 제1부장 등을 역임한 뒤 2012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전 청장은 이날 특강에 앞서 합평군으로부터 명예군민패를 받았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진도 '죽림권역 종합정비사업' 기공식

진도군은 지난 10일 임회면 죽림마을 강계해변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죽림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군은 내년까지 죽림권역에 국비 3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1억5000만원 등 50억원을 투자해 문화복지·소득기반시설 등을 설치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 전북

### 순창 농산물 유통 '통합 마케팅'

#### 郡, 고추·딸기 등 공동출하 조직 육성 사업자 공모

순창군이 소비시장 여건 변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유통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에 나섰다.

군은 12일 "산지유통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13일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공모사업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체는 순창군조합공동법인으로, 순창군과 5개 농협이 사업에 참여한다. 고추와 딸기, 매운, 참새소, 매실, 복분자 등 6개 품목을 선진형 공동선별출하회를 우선 조직하고 향후 루프와 블루베리 등 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산지유통종합계획 수

## 부안군 귀농·귀촌 인구 급증

### 올해 151가구...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

#### 군, 자금 지원·정보 제공 등 다각적 노력

부안에서의 인생 2막, 새로운 삶을 향한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부안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 및 정보제공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과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12일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부안에 새 동지를 둔 귀농·귀촌 세대가 151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귀농·귀촌 48가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올 연말까지 200가구 이상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 주민들을 위해 귀농창업자금, 영농안정자금, 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체험 교육, 맞춤형 상담, 농업·택지 정보 및 농지가격 자료 등 각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또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성공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도모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던 예비 귀농·귀촌 등록제도도 이 같은 급증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만큼 농촌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 새로운 지원정책과 더욱 검증되고 자세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따뜻한 추석명절 되세요"

#### 남원 '아성레미콘', 주천면 주민 등에 리면 30박스 전달

(주)아성레미콘(대표 김종오)이 12일 남원시 송동면, 주천면에 각각 리면 30박스(사진)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며 전달했다.

송동면과 주천면은 이 물품을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오성 송동면장은 "최근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불황으로 이웃돕기 운동이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이 이웃돕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새만금 개발청 출범

국내 최대 개발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이 12일 세종시에 마련된 청사에서 공식 출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연택 새만금 위원장,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 김완주 전북지사, 이종재 행정청장, 정은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내빈들이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이병국 청장이 초대 청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 단신

### 부안 200억 투입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

부안군은 12일 "신운천을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정비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는 2015년까지 총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올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정읍배울 300t 수출 12억원 수익 올려

정읍배울의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과수영농조합법인(박홍성 조합장)에 따르면 올해 모두 300t을 수출해 12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40t(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인인 지난 11일까지 캐나다와 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운천은 부안읍 신운리에서 동진면 하장리에 이르는 2.4km 구간으로, 갈수기에는 도심지 하천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군은 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치수, 이수, 물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수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고창 문화의 전당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에 고창문화의전당이 선정됐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을 기반으로 한 '학교 밖, 토요일, 예술 감상교육!' 프로그램이다. 주 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어난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및 올바른 문화예술 감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윤영민기자 cy0370@

### 정읍상의, 내고장 상품애용 장보기 행사

정읍상공회의소와 사단법인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정읍지역본부는 1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읍시와 공동으로 내 고장 상품애용 캠페인을 벌이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80여명은 생고를 시장 입구에서 정읍역까지 도로 양쪽 상가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후 회원들은 은누리 상품점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 뒤 구입한 생활필수품을 정읍시내 비인가 장애인 2개 시설에 추석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